BOJ 양적완화 이후 아시아 채권발행 물량 증가

이경아 연구원

■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 이후 일본 투자자금의 해외 유입에 대한 기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신규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.

- 일본은행(BOJ)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발표 이후 일본 투자자금의 일부가 해외 투자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아시아 지역의 채권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Dealogic에 따르면 지난 주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 국가와 기업들이 발행한 경화표시[1] 채권발행 규모는 약 75억 달러로 이는 2012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됨.
  - 누계 기준으로 올해 들어 약 547억 달러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2년의 469억 달러에 비해 약 17% 정도 증가한 규모임.

■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투자다변화 목적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아시아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
- 일본은행은 4월 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'양적 · 질적 금융완화'정책을 발표하였음.
  - 이는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2%의 물가목표를 달성하고, 본원통화를 연간 60~70조 엔씩 공급하여 현재 138조 엔 규모의 본원통화를 2년 내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.[2]
- 양적완화 시행 이후 엔화약세가 될 경우 자국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일본 자금의 일부가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규모를 일정 부분 늘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  - HSBC에 따르면 일본 해외투자자금의 5~7% 정도가 증가될 경우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약 7,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자금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.[3]

1) 달러, 유로, 엔 등.
2) 해외경제포커스 제2013-15호, 한국은행.
3) Bond markets fly to BOJ mood music, Financial Times(2013. 4. 12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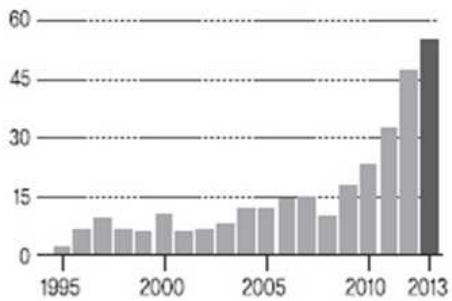
■ 공격적인 양적완화 시행으로 저금리 자국 시장 대신 고수익 추구 목적의 해외 투자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일본 양적완화의 주요 매입대상 채권인 10년 만기 장기국채 수익률은 약 0.6%[4]대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, 일본 금융기관들은 좀 더 높은 수익률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릴 유인이 있음.
- 이에 따라 향후 신흥국가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으로의 일본 투자자금의 완만한 자금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- 비록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은 아니더라도 이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국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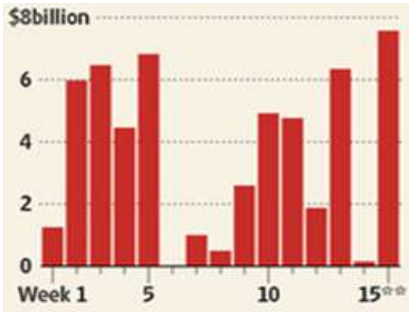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, 2〉 일본 제외 아시아 채권발행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)

〈그림 1〉 연간 채권발행액



〈그림 2〉 주간 채권발행액(2013년)



자료: WSJ, 헤럴드경제(2013. 4. 16).

(WSJ, 헤럴드경제 등)

4) 2013. 4. 15 기준. 일본 장기국채수익률(10년 만기)은 2011년 2월 1.35%를 기록한 이후 경기부양 및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왔음.